



I 이달의 소식

- 1. 모임안내 1쪽
- 2. 여름수련회 강의신청 쇄도 1쪽

II 아티클

- 1. 노아 (8) 물이 견히고 - 이종헌 2쪽
- 2. 성경 그리고 창조와 수학 (9) 본론 - 옥봉흠 3쪽
- 3. The BIBLE Comes Alive(6) by Clifford Wilson - 이종헌 역 6쪽
- 4. 창조단상 (9) 모기의 계절이 다가온다 - 박종환 11쪽

인사말

초목의 푸르름이 한창 무르익은 7월이 되었습니다. 인간의 눈을 배려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푸른 초목을 받았습니다. 저는 육신의 질병 가운데 긴 터널을 빠져나오고 있는 느낌입니다. 결코 대단하지 않은 육체적 고통 때문에 많은 시간을 빼앗겼습니다. 치뤄야 할 영적 전쟁을 눈앞에 두고 바짝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조금 있으면 각 교회마다 수련회들이 열립니다. 그 기간을 통하여 많은 것들이 충전되는 여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 창조과학회 대구지부장 이종헌 올림



1. 7월 정기모임 안내

창조과학회 대구지부에서는 **매월 정기 스터디모임**이 있습니다. 이 모임을 통해서 새로운 창조과학 자료를 발굴하고, 깊이 있는 토론을 통해 보다 전문성 있는 부분에 대해 알아보며, 상호교제를 통해 사랑과 풍성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금월(7월)모임**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

일시: 2003년 7월 15일 화요일 오후 7시

장소: 추후공고(창조과학회 대구지부 홈페이지 creation21.org를 통해서)

내용: "Geology: A Study Guide to fossils, Formations and the Flood (지질학)"

발표: 길소희

약도: 문의전화 (053)743-6058

2. 여름수련회 강의 신청 쇄도

바야흐로 방학이 되면서, 많은 교회에서 여름수련회 강의 요청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강의일정을 다 소화하기가 벅합니다. 순회강사분들께서는 많이 협조해 주셔서 각 교회와 단체들이 참된 지식을 얻고, 큰 은혜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강의를 원하시는 단체에서는 본회에 전화를 주시되, 적어도 두 주전에는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디든지 달려가서 섬기겠습니다.

노아 (8) 물이 걷히고
이종헌 (경일대 교수, 토목공학)

물이 걷히고



노아 육백 일년 정월 곧 그 달 일일에 지면에 물이 걷히고, 이월 이십칠일에 땅이 말랐습니다. 그러니까 40일을 비가 내렸고, 물이 백오십일 동안 창일하였으며, 74일 동안 물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바람이 불어 57일만에 땅이 말랐습니다. 그 이전에 큰 깊음의 샘들이 터지며 바다에서 해일이 일어나고 모래들이 덮칠 때 동물들은 도망쳤습니다. 그때 대개는 발이 느린 동물들이 먼저 흠에 덮이고, 그 다음에는 발이 조금 빠른 동물들이 묻혔으며, 맨 위에는 발이 비교적 빠른 포유류의 동물들이 흠에 묻히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57일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에 물이 빠지므로 그것들이 화석이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화석의 생성 원인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동물이 죽고 그 위에 오랜 세월동안 흠이 조금씩 덮이면 나중에 화석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지질학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동물이 땅에 묻혀서 화석이 되려면 30일에서 60일 사이의 짧은 기간 동안 물이 빠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기간은 성경에서 땅이 말랐다고 말하는 57일이 아주 적합합니다. 오랜 세월 동안에 흠이 덮인다면 그동안 미생물이 들어가서 동물이 화석이 되지 못하고 썩어버리게 됩니다.

예전에는 지층이 쌓이거나 강이 깎이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주장했었습니다. 그것을 동일과정설이라고 하는데, 요즘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1980년부터 3년 동안 활동하였던 미국의 세인트 헬렌 화산의 경우를 보더라도 지층이 쌓이는데 오랜 세월이 걸리지 않으며, 작년에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홍수를 보더라도 강의 모양이 변화하는데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다는 증거들을 봅니다. 그런 변화에 필요한 것은 오랜 시간이 아니라 어떤 격변적인 사건입니다. 이런 사실에 근거하여 지질학에서 최근에 등장한 이론이 격변적 지질학(episodic geology)이며, 많은 사람들이 그 타당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전의 지질학에서는 지질주상도를 이야기했습니다. 맨 아래층이 고생대, 다음이 중생대, 맨 위가 신생대 등 지질의 구분을 해 놓고 있는데, 수십억년에 걸쳐 그 순서대로 지층이 쌓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구 상에는 지질주상도의 모양대로 지층이 나타나는 경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 순서가 바뀌어 나타나는 곳이 있습니다. 현실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지질주상도의 지층의 나이를 말할 때는 그 속에 들어있는 화석을 가지고 기준으로 삼고, 화석의 나이를 말할 때는 그것이 들어있는 지층의 나이를 가지고 기준으로 삼습니다. 이것은 순환논리로서 서로 상대방에게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므로 하나가 틀리면 다 틀리게 되는 것입니다.

서두에서 말했듯이 지질주상도에 들어있는 순서대로 진화가 된 것이 아니라, 홍수로 인해 흠에 덮이면서 발이 느려서 빨리 도망가지 못한 순서대로 묻혔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질주상도에 나타나는 순서대로 진화가 되었다고 믿으므로 사람도 원숭이로부터 진화된 것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진화론적으로 보면 사람이란 아메바 등으로부터 진화된 동물에 불과합니다. 단지 발달된 문명을 가진 동물일 뿐입니다. 그러나 진화는 관찰된 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일부 학자는 진화가 오랜 세월동안 서서히 일어나기 때문에 관찰이 안된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결코 사실이 아닙니다. **참조**

◎ 7 수론(數論)

7을 나타내는 말에는 일곱을 의미하는 기수 ‘쉐바’(שֶׁבַע)와 일곱째를 의미하는 서수 ‘쉐비이’(שִׁבְעִי)가 있다. 더불어 이것을 어근(語根)으로 하는 단어로는 충만하다는 뜻의 ‘사바’(שָׁבַע) 맹세하다 는 뜻의 ‘샤바’(שָׁבַע)를 들 수 있다. 7에 해당하는 헬라어 알파벳은 ‘헵타’(ἑπτά)다. 고대 헬라어 문헌에서 일곱은 성취된 기간 또는 완전히 완성된 기간의 상징이다. 바벨론인에게 있어 7은 충만과 전체의 뜻이다

7이라는 값을 가지는 일곱 번째 히브리어 알파벳은 ‘무기’(weapon, Arms)를 상징하는 ‘자인’(יָדָיִם)이며, 헬라어 알파벳은 ‘제타’(ζῆτα,Z:ζ)이다. 7은 하늘의 상징수인 성부, 성자, 성령을 의미하는 3과 땅의 상징수인 동서남북을 의미하는 4를 합한 수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킨다(창2:2-3, 8:6, 15:1).

구약시대의 7은 매우 신성한 의미로 사용됐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구속사역의 완성을 인하여 우주창조 후 7일째 안식하였으며(창2:1-2), 이를 기념하여 일곱째 날을 안식일로 특별하게 성별했다(출20:10, 신5:14). 또한 성별된 기간으로 무교절은 칠일동안 지키도록 되어 있다(레23:6-8). 완전한 속죄의 상징으로 제물의 피를 속죄소 앞에 일곱 번 뿌리기도 했다(레16:14, 19). 온 세상을 두루 감찰하시는 여호와의 눈도 일곱이라고 되어 있다(슌4:10).

신약 성경에서 7은 **우상숭배를 하지 않는 순결한 신앙**(롬11:14), **완전한 안식**(히4:4), **온전한 믿음**(히11:30) 등을 의미한다. 또한 **완전하신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을 나타내기도 한다(계1:4, 1:16, 2:1, 5:1, 6, 6:8-11장, 15:1).

참고로 70이란 수의 값을 가지는 열 여섯 번째 히브리어 알파벳은 ‘눈’(eye)을 상징하는 ‘아인’(אֵיִן)이며, 헬라어 알파벳은 ‘오미크론’(O : o)이다. 성경에서 70은 **죄로부터의 완전한 회복과 구원을 상징**하는 숫자 70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엘림에 있는 물샘 열둘과 종려 70주는 이스라엘 백성을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께서 세우신 열두 제자들과 칠십 문도와 상징적인 관련을 갖는다(출15:27, 마10:1-2, 눅10:1).

이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 포로생활에서 70년 만에 회복되었다(대하36:21, 렘25:11-12, 렘29:10, 단9:2). 또 하나님은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칠십 이레의 기한 동안에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원히 속하여진다’ 고 예언하시기도 했다(단9:24).

성경에 <7> 또는 <일곱>이란 숫자가 나타나는 경우는 아래와 같다.

“하나님의 세상 창조 작업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쳤다.” (창2:2)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 배나 받는다” (창4:15)

“노아의 방주(方舟)에 나오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일곱>씩 이었다” (창7:2)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에게 봉사하였고” (창 29:20)
 “바로가 본 하수에서 올라온 살찐 암소가 <7>마리였고” (창41:2)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날 때 절을 <7>번 하였으며” (창33:3)
 “애굽의 흉, 풍년이 각각 <7>년씩이고” (창41:47-54)
 “무교절과 장막절은 각각 <7>일간씩 지키고” (출12:16-18)
 “병가(病家)에서 새 두 마리의 피를 <7>번씩 뿌려 정결케 했고”(레14:48-51)
 “여리고 성이 제<7>일에 <일곱>번 도니 무너졌고” (수6:12-16)
 “삼손의 머리털 <7> 가닥을 깎으니 힘이 없어지고” (삿16:13-19)
 “엘리야의 하인이 <7>번 기상을 예보했으며” (왕상18:43-44)
 “땅에 <7>년 기근이 오고” (왕하8:1-3)
 “나아만이 요단강 가에서 <7>번 목욕하니 병이 나왔으며”(왕하1:10-14)
 “여호와와 미워하시는 것 곧 싫어하시는 것이 육 <7>가지니 곧” (잠6:16)
 “앗수르 사람이 우리 궁전을 밟으면 <7> 목자(牧者)로 치겠다 하고” (미5:5)
 “그 날에 <일곱> 여인이 한 남자를 붙들고 당신 이름으로 수치를 면하고자 하고” (사 4:1)있다.

스가랴서와 다니엘서는 <7>이라는 숫자가 강조되어 있으며, 창세기 12장 2-3절에는 계약(契約)의 <7> 부분이, 그리고 출애굽기 6장 6-8절에는 이스라엘의 <7>중(重) 약속이 나타나 있다.

그러므로 구약성경의 <7>수의 공통의는 ‘신적충만(神的充滿 : divine fullness)’과 ‘만족(滿足 : satisfaction)’ 그리고 ‘완성(完成 : perfection)’과 ‘완전(完全 : completion)’이다.

◎ 8 수론(數論)

8을 나타내는 말에는 여덟을 뜻하는 기수 ‘체모네’(ηϋττω)와 여덟째를 뜻하는 서수 ‘체미니’(ηϋτω)가 있다. 숫자 8에 해당하는 헬라어 알파벳은 ‘옥토’(ὀκτώ)다. 여기서 파생된 영어식 표기가 ‘octa’이다. 참고로 8각형은 ‘octagon’이며, 피아노의 5도 음정을 ‘octave’라고 한다.

우리나라에서 4의 배수인 8은 중복과 강조의 효과를 나타내는 경우가 있다. 사방팔방(四方八方), 사고팔고((四苦八苦), 사통팔달(四通八達)등이 그 예다. 바벨론에서 8은 천국의 수로 인식돼 있다. 왜냐하면 바벨론 신은 탑 모양으로 세워진 신전의 8층에 기거했다고 알려졌기 때문이다.

고대인들은 8을 행운을 불러오는 특별한 수라고 여겼다. 8은 근원으로 회귀하는 의미와 7이 준비하고 성취한 것을 완성하는 의미를 갖는다. 8은 신적인 완전수 3과 은혜의 수 5의 합으로 부활을 상징한다. 뿐만 아니라 중세 신학자들은 예수의 헬라식 표기인 ‘예수스’(Ἰησοῦς : 10+ 8+ 200+ 70+ 400+ 200)가 888이라는 값을 가지기 때문에 성스러운 수로 인식하기도 했다.

8이라는 수의 값을 가진 히브리어의 여덟 번째 알파벳은 ‘담’(wall, partition), ‘울타리’(fence)라는 의미를 가진 ‘헤트’(חֵט)이며, 헬라어 알파벳은 ‘에타’(ἒτα, Η : η)다. 또 ‘헤트’는 ‘죄에서 다시 깨끗하게 한다’는 구원과 재창조를 의미하는 8이란 숫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죄로 인해 막힌 담을 허시고 구원의 길을 여신 예수와도 그 뜻이 일맥상통한다. 성경에서 8은 구세주를 통한 구원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노아의 가족 8명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홍수 심판에서 방주를 통해 구원받았다(창6:1-7:8, 벘전3:20). 태어난 지 8일 만에 행하는 할례는 범죄 함으로 더러워진 피를 뽑아내어 깨끗하게 한다는 구원을 상징한다(창17:10-14, 23-27, 레12:3, 눅2:21).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주님은 7일째 안식일이 지난 첫날 부활하셨다(마28:1-6, 막16:1-6, 눅24:1-8). 때문에 숫자 8은 안식 후 첫 날인 새 안식일, 곧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인 주일이 됐다(요20:1-10).

참고로 80이라는 수의 값을 가지는 히브리어의 열일곱 번째 알파벳은 ‘입’(mouth)을 상징하는 ‘페’(פֵּ)이며, 헬라어 알파벳은 ‘피’(Π : π)다.

성경에서 <8> 또는 <여덟>이란 숫자가 나타나는 경우는 아래와 같다.

“노아의 방주에서 구원을 얻은 자가 <여덟>명이었다” (벘전3:20)

“남자는 난지 <8>일만에 할례(割禮)를 받았다” (창17:12)

“제 <8>년에 다시 파종(播種)할 수 있었다” (레25:22)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자가 된지 <8>년에” (삿12:14)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다” (삿3:8)

“여호람이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통치했다” (대하21:20)

“유다 왕 여호야긴이 잡혀 갈 때는 바벨론왕 <8>년이였다” (왕하24:12)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8>수는 ‘부활’과 ‘새 시작’ 즉 ‘새로운 질서(秩序)’를 뜻한다.

(다음 호에 계속)

잠깐 쉬어가요, 퍼즐!!!

①	②		⑩	⑪
	③	④		
⑤				
⑥	⑦		⑨	
	⑧			

<가로열쇠>

- ① 어떠한 정밀기계도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매우 복잡. 우리 몸.
- ③ 지구의 표면 중 물로 덮이지 않은 부분.
- ⑥ 우리의 지혜로는 다 알 수 없다고 할 때, ○○하다고 하죠.
- ⑧ 미터(m)의 천분의 일은?
- ⑩ 온도계가 가리키는 온도가 0°C 이하임을 나타내는 말.

<세로열쇠>

- ② 건전한 몸과 온전한 운동능력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
- ④ 태양계의 행성(行星) 중 하나로 인류가 살고 있는 천체.
- ⑤ 지각·기억·고려·평가·결정 등을 포함하는 복합적인 능력.
- ⑦ 아직 밝혀지지 않은 사실, 또는 알려지지 않은 속내.
- ⑨ 배 밑에서 실을 뽑아 그물을 치고, 그 그물에 걸리는 곤충을 잡아먹고 산다.
- ⑪ 세상을 만드신 분.

The BIBLE Comes Alive(6) by Clifford Wils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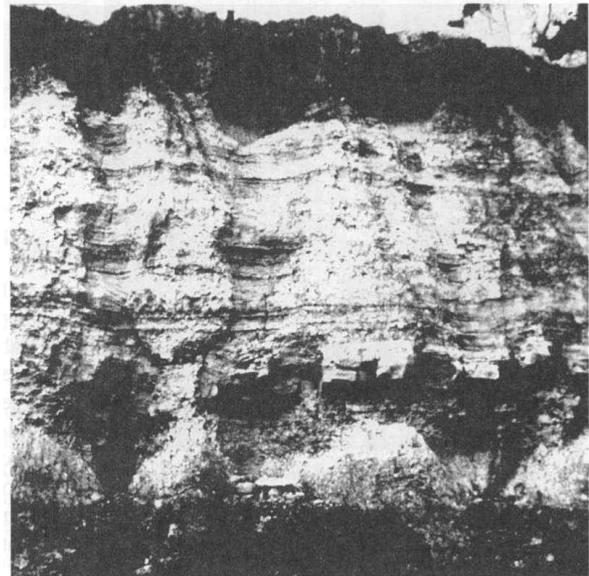
다지층 석탄 화석

이 화석의 형성 과정에 대해 Andrew Snelling 박사는 이렇게 적고 있다:

『그 지역은 Quarries Head라고 하는 곳으로, (호주 New South Wales의) Newcastle의 Caves Beach 바로 남쪽에 있으며, 최초 보고자는 시드니 대학의 지질학 교수인 Edgeworth David 경이다. 그는 1907년에 *Geological Survey of New South Wales Memoir G4*라는 이름으로 출판된 잡지에 발표한 “The Geology of the Hunter River Coal Measure, New South Wales”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그것을 보고했다. 이 사진은 두 개의 나무 그루터기가 Lower Pilot Seam의 위에 놓여있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 중 최소한 하나의 그루터기는 그림에서 하늘을 배경으로 음영이 된 Upper Pilot Seam의 위까지 관통하고 있다.

David가 1907년의 보고서에서 이들 나무 그루터기에 관하여 발표했을 때는, 나무 그루터기가 Lower Pilot Seam에서 곧바로 Upper Pilot Seam을 관통하는 진짜 다지층 화석이 많이 있었다.

나무 그루터기는 뿌리가 절단되어 있어서, 지금 화석이 되어 있는 곳에서는 더 이상 자랄 수 없지만, 다른 곳에서 그곳으로 이동되어 와서 이런 방식으로 문혔을 것이다. 1964년에 Newcastle 대학의 지질학 교수였던 Beryl Nashar가 *The Geology of the Hunter Valley*라는 책을 출판했을 때만 해도, 많은 수의 나무 그루터기가 여전히 다지층 화석이었다. 이 사진에 보이는 나무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중 모습이 드러난 것의 일부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풍화와 침식의 작용 및 야만적 행위와 사람들의 절취에 의해 제거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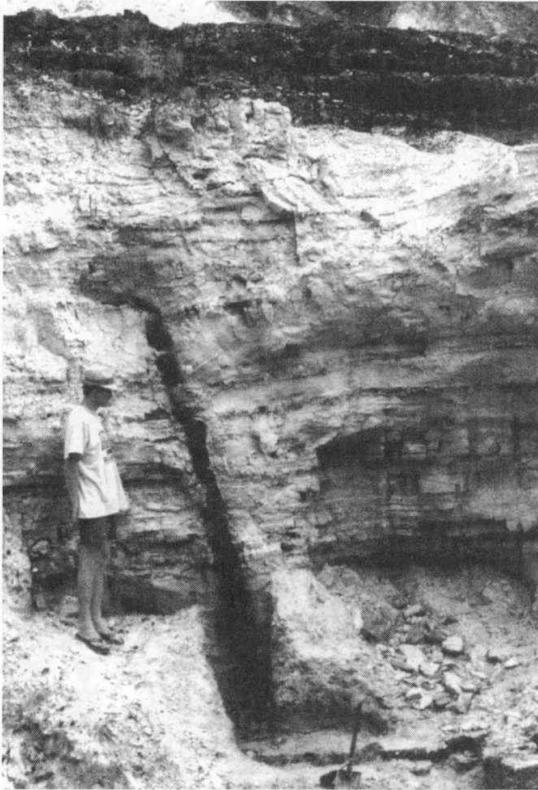
다지층 석탄 화석

호주의 New South Wales 지역에 있는 Newcastle에서 20피트 이상의 석탄층을 관통하는 화석화된 나무를 보고 있다.

호주 Newcastle 부근의 다지층 나무 화석

이 사진의 화석화된 나무는 호주 N.S.W.의 Swansea Heads 부근에서 찍은 것으로, 나무껍질이 석탄으로 변했기 때문에 검다. 이 나무는 삽이 있는 곳 바로 뒤의 아래에 있는 Lower Pilot Seam 위에 얹혀있다.

Upper Pilot Seam은 사진의 맨 윗부분에 있다. 화산재의 층이 매우 분명하게 보인다. 앞의 사진도 같은 장소에서 찍은 것이다.



석탄 광층(Seams)을 통과하는 나무

Newcastle 부근의 동일한 지역에 있는 이 나무와 같이 여러 석탄층으로 싸여 있는 나무의 예가 전 세계적으로 많이 있다. 때로는 심지어 위 아래가 뒤바뀐 것도 있다: 그것들은 거기서 자란 것일 수가 없다. 그것들은 물에 의해 이동되어 왔으며, 수일 내에 일련의 석탄 광층(seams)으로 급격히 싸여졌다. 수백만년 혹은 수세기 동안 형성된 것이 아니다.

Snelling 박사는 진화론자들이 이들 규화목(화석화된 나무)을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지금은 Lower Pilot 석탄 광층이라고 부르는 토탄 습지에서 숲이 자랐는데, 나중에 그들 뿌리가 잘라져서 토탄 습지에서는 건강하게 자라날 수 없는 형태의 소나무(Dadaxylon)가 남아있는 것이다. 우리는 그 나무들이 여기서 자란 것이 아니라, 격변에 의해 옮겨져 와서 여기에 묻힌 것이며, 그렇지 않고서는 화석으로 보존될 수 없는 것이라고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 다지층 나무화석은 하나의 커다란 대격변 즉, 성경적 홍수를 지적해 준다. 다지층 규화목이란 다양한 형태의 바위를 포함하는 여러 지층을 관통하는 나무를 말한다. 때로는 나무들이 거꾸로 박혀있는 경우도 있다. 이것은, 먼저 나무들이 옮겨져 왔고, 다음에 여러 지층들이 급하게 연속해서 몰려와서 그것을 둘러쌌다는 것 이외에는 만족할만한 다른 설명이 없다.

많은 탄전(炭田)에는 석탄을 산출해 내는 여러 지층들이 있는데, 그 지층 안에는 암석과 기타 다른 물질들이 묻혀있다. 지층의 두께는 불과 몇 인치에서 수 피트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각 위치마다 매우 많은 양의 식물과 나무 자원들이 이동해 왔다는 증거가 있다. 그런 식물과 나무들이 대단히 많이 쌓여있다. 다지층 화석의 증거는 **한번의** 대홍수를 확신시켜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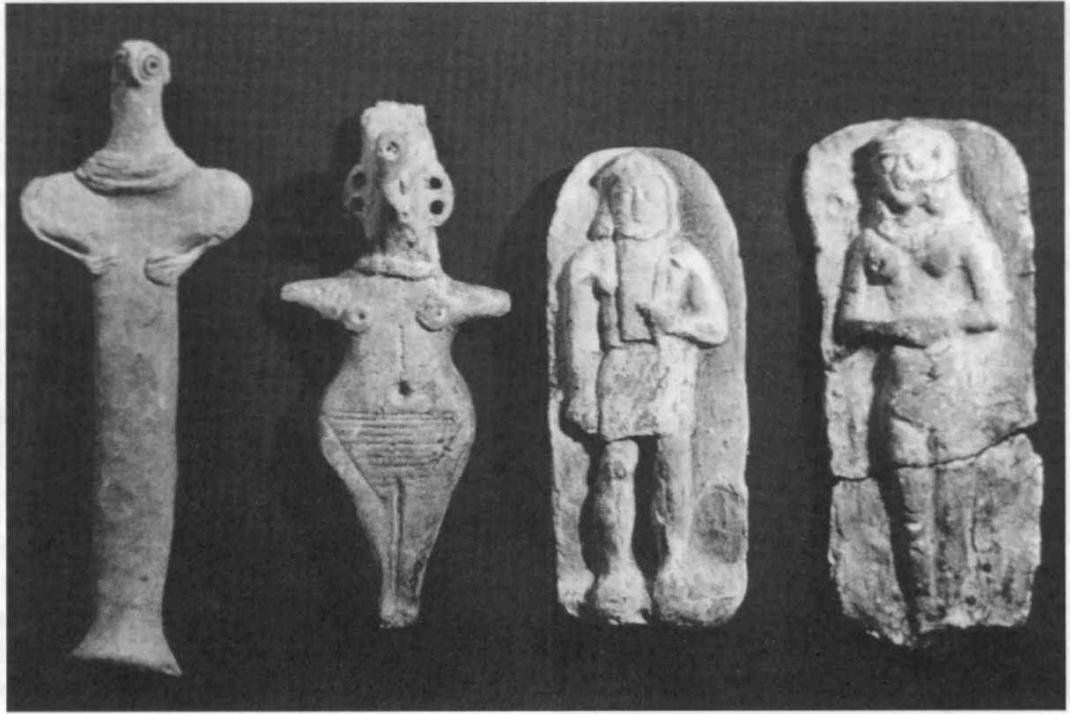
홍수에 관한 길가메쉬와 바빌론 이야기

왼쪽에서 세 번째 사진이 길가메쉬이다. 그는 고대의 도시국가 우룩(Uruk)의 전설적인 통치자였으며, 2/3는 신이고 1/3은 사람인 것으로 여겨졌다. 홍수의 이야기는 서사시를 이루는 12개의 서판 중 11번째에 들어있다.

우트나피쉬팀(Utnapishtim)은 바빌론의 노아인데, 그는 자기 뱃사공 풋수르-아무리(Pussur-Amurri)와 함께 7일 간의 무서운 홍수를 지나왔다. 길가메쉬의 매우 좋은 친구였던 엔키두(Enkidu)가 신들의 섭리에 의해 죽자, 길가메쉬는 자기도 역시 결국에는 죽어야 한다는 것을 실감했다. 그는 죽음에서 도망친 사람이 있다는 말을 듣고, 자기도 불사의 비밀을 배우고자 그를 찾기 시작했다. 큰 바닷가에서 청어의 일종인 사두리(Siduri)를 만나는데, 그는 바다를 여행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맥주를 준다.

“죽음의 물들”이라고 알려진 바다를 통과한 후에 그는 마침내 우트나피쉬팀을 찾았는데, 그는 영원한 생명을 발견한 유일한 사람이었다. 우트나피쉬팀이 길가메쉬와 이야기를 나눈 후에, 그의 친구 엔키두의 죽음 때문에 그가 슬퍼한다는 것과, 생명과 죽음에 대한 커다란 미스테리를 깊이 생각하며 이리저리 방황하면서 슬픔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우트나피쉬팀에게 어떻게 하면 신들과의 연합에 이르며 영원한 생명을 찾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우트나피쉬팀은 그의 집이 멸망되게 되었으니까 방주를 만들어서 대표적인 생물들을 그 안으로 데려오라고 신들 중의 하나가 그에게 시킨 내용의 이야기를 말해주었다.

그 서사시는
우트나피쉬티가
30,000 바구니
분량의 역청을
사용하여 커다
란 배를 만드는
과정과, 그와
그의 가족들이
안전하게 배를
탄 후에 커다란
홍수가 밀어닥
친 과정을 상세
하게 말하고 있
다.



홍수에 관한 길가메쉬와 바빌론의 이야기

사람들은 한분의 진정한 하나님에 대한 경배로부터 떨어져 나갔다. 그들은 남자와 여자와 동물 및 기는 것들에 대한 형상을 만들었다. 왼쪽에서 세 번째가 그들의 영웅이었던 길가메쉬로서 신격화된 사람이다.



아라랏산에 있는 수도원

아라랏산에 있는 성 야고보 수도원은 1840년 6월에 파괴되었다.

수세기에 걸쳐 노아의 방주에서 가져온 나무로 만들었다고 주장해왔다.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여름이 오래 지속 되는 때에 그 방주에 여러 차례 들어갔었다고 하는데, 그런 시기에는 빙하의 선이 높아져서 방주가 드러났음을 의미한다.

1960년대 말에 뉴질랜드의 유명한 고고학자인 Hardwick Knight이 이들 공예품에 대한 많은 사진을 본 저자에게 보여준 적이 있는데, 그는 수년동안 방주의 연구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아라랏산에 있는 성 야고보 수도원

이 사진은 아라랏산에 있는 성 야고보 수도원으로, Lisa Flentge가 복제한 그림을 확대한 것이다. 그것은 J. J. F. Parrot 박사가 1845년에 출판한 책 *Journey to Ararat*에(164쪽) 들어있다.

이 수도원에는 수세기에 걸쳐 방주에서 발견한 공예품들을 소장하고 있다. 공예품들은 고대 문명 혹은 기타 발견 장소와 공통점을 갖고 있다. 그것들을 통하여 우리는 생활 양식 및 실제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다. 아라랏산 부근에 살던 지역 사람들은 그들의 공예품을

오래 살았던 사람들

창세기 5장에는 수백년 동안 살았던 사람들에 대한 상세한 이야기가 나온다. 그때에는 죄와 질병에 대한 영향이 지금처럼 크지는 않았으며, 홍수 이전에는 아마도 기후가 매우 일정했을 것이다. 이에 대한 힌트가 고대 도시 키쉬(Kish)에서 발견된 (그림에 있는) 수메르 왕의 목록에 나와 있다. 그 왕의 목록은 **홍수 이전에** 살았던 왕들에 대해 말하고 있다 - 그들은 수천년 동안 살았던 것으로 짐작된다.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바빌론의 숫자를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다고 제안되었는데, 그렇게 되면 그 나이들이 창세기에 기록된 것들과 매우 근접하게 된다. 여기에는 60진법이 아니라 10진법에 근거한 숫자 체계가 들어있다.

키쉬에서 발굴한 사람들은, 그 도시 역사의 초기 시기에 살던 거주자들은 하늘의 신과 땅의 신과 태양의 신만 생각했었다는 증거를 발견했다. 또한 그들은, 최초의 신은 하늘의 신이었으며 그 신으로부터 다른 모든 신들이 나오게 되어, 결국에는 신들의 수가 5,000에 이르게 되었다고 믿었다. 발굴자인 Oxford 대학의 Stephen Langdon은 다음을 지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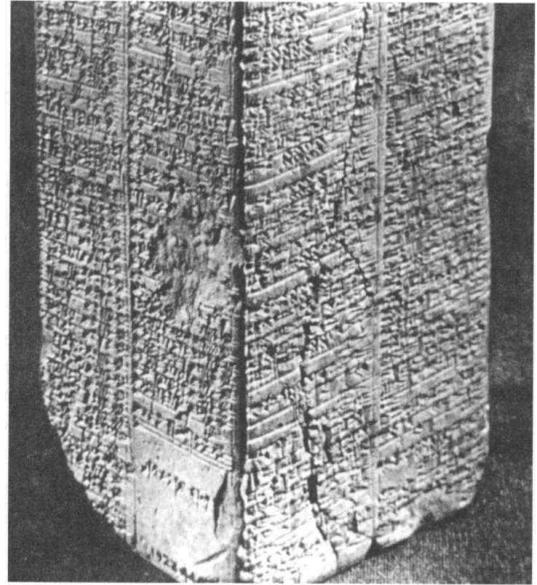
『내 의견으로는, 인간의 고대 종교 역사는 유일신교로부터 극단적 다신교로 급격히 상승했으며 악령에 대한 믿음이 널리 퍼졌다. 이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인간 타락의 역사이다.』

*사자의 서(死者의 書)(The Book of the Dead)*에서 고대 이집트의 생활과 신앙을 취급하면서 E. A. Wallis Budge는, 이집트 사람들도 원래는 한분 하나님을 믿었었는데, 그분의 여러 가지 속성들이 결국 여러 신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인식하게 되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심지어 유월절(Passover)과 출애굽의 이야기에 있어서도 이에 대한 개념이 희미하게 남아있음을 보게 된다. 즉, 출애굽기 12:31에서 바로는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말한다.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go, serve the Lord, as ye have said).” 바로는 태양신 라(Ra)의 살아있는 현시(顯示)로 여겨지지만, 여기서는 그가 여호와를 인정하고 있다!

수메르 왕의 목록

역사학자 Berossos에 의하면, 한 사람의 통치기간이 10,800년 되는 사람부터 64,800년 되는 사람까지 10명의 왕이 있었으며, 이들의 통치기간 전체 합이 432,000년이라고 한다. 그것은 명백히, 환산이 잘못되었거나(10진수로 계산해야 하는데 60진수로 잘못 가정했다), 혹은 크게 과장되었다.

분명히, 통상적으로 주어지는 이들 바빌론의 숫자들을 수용할 수 없지만, 그것들을 성경의 숫자들과 나란히 대조해 보면 성경 기록의 보수성에 인상을 받는다. 그러나, 바빌론의 숫자들을 적절히 환산해 보면 사실상 그것들은 창세기의 숫자들과 현저히 근접한다.



오래 살았던 사람들

이 수메르 왕의 목록은 바그다드의 남쪽에 있는 키쉬에서 발견되었다. 여기서는 **홍수 이전에** 수천년 동안 살았던 10명의 왕이 적혀있다. 홍수 이후에 생애의 길이가 보다 “정상적”이 되었다.

여기서 수메르 왕의 목록을 다시 소개한다. 이집트와 중국에서도 수 천년 동안 살았던 왕을 이야기한다. 보다 최근의 그리스와 로마 사람들은 더 보수적으로, 800년에서 1,000년을 제시하는데, 이는 성경의 숫자와 근접한다.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는 초기의 사람들이 오래 살았다는 것에 대한 확실성에 의심을 갖지 않았다. 수메르 왕의 목록은 홍수 이후에 왕의 통치 기간이 갑자기 약 100년으로 줄어든다. 우리는 또한 성경 기록에서 사람들의 수명이 그와 비슷하게 감소하는 것을 발견한다. 수메르 왕의 목록을 쓴 바빌론 작가는 창세기 11장을 담고 있는 자료를 입수했던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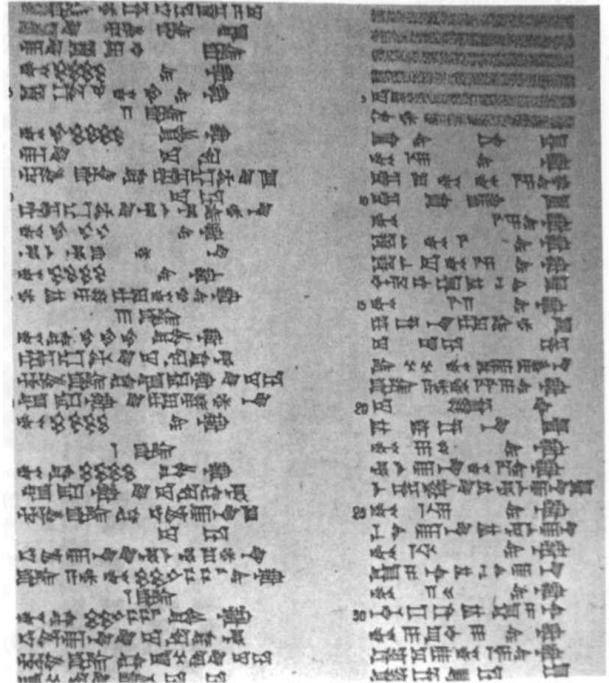
Donald Wiseman 교수는 (성경고고학에 의한 설명 /Illustrations from Biblical Archaeology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한다.

『그 목록들은 대홍수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10대째라는 점에서 성경과 일치한다. WB44는 이렇게 말한다. “그때에 홍수가 하늘로부터 (또 다시) 뿜슬고 지나갔다.” 역사의 이 분명한 분기점은 홍적층 이후의 사건을 설명하는 부분부터 원전에 선을 그려서 나누고 있다.』

니므롯! - 고대의 신? - 아니다

고대 앗시리아의 니네베에서 발굴된 모든 보물 중에서 가장 놀라운 것은 이 육중한 니므롯의 머리인데, 사실 인부들 몇 명은 이것을 보고 무서워했다.

정확한 위치는 칼라(Calah)인데, 앗시리아의 “또 다른” 수도 중의 하나이다. 새로운 왕은 (예를 들어) 약 20마일 북쪽의 Koujunyik에 있는 자기 아버지의 궁전이 마음에 들지 않은 것 같다. 여러 시기에, 여러 도시들이 행정의 중심이 되었는데, 위의 두 도시 뿐 아니라, Asshur와 Khorsabad도 포함된다. 니므롯(Calah)은 “위대한 니네베”의 일부였다.



수메르 왕의 목록

이 그림은 수메르 왕의 목록에 관한 명각 사본 세 개 중의 하나이다. 목록에 있는 왕들은 10,000년 내지 64,000년 동안 산 것으로 추정된다. 그 숫자들은 분명히 과장되었거나 잘못 환산된 것이지만, 이것과 기타 기록들을 통해 보면, 홍수 이전에는 사람들이 매우 오래 살았음이 분명하다.



니므롯의 상(象)

현지 인부들이 니므롯의 이 동상을 발굴했을 때 정말 무서워했다. 그는 창세기 10:9에 힘센 사냥꾼(거기서 그는 자기에게 복종할 사람들을 찾았다)으로 묘사되어 있다.

창조단상 (9) 모기의 계절이 다가온다

박종환 (경북대 교수, 화학)



모기의 계절이 다가온다

이제 여름철이 되어 가면서 모기 때문에 걱정인 분이 한두 분이 아니리라.
이번에는 모기에 대해 알아보자.

모기는 요즘 과학용어로 말하면 '최첨단 적외선 탐지기'라고 말할 수 있다. 모기는 공중을 헬리콥터처럼 날아다니다가 피를 빨 대상과 장소(?)를 찾아 딱! 내려앉는 그 자리가 바로 가장 따뜻한 곳이 되는데 거의 실수가 없다. 두 사람이 잠을 자면 유독 한사람만 집중적으로 물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아기를 키우는 어머니들은 아기들에게만 달려드는 모기가 얼마나 미울까? 그것은 그만큼 아기가 엄마에 비해 체온이 따뜻하다는 것을 말해 준다. 여름밤에 잠을 잘 때 엄마는 샤워를 하지 말고 아기만 찬물로 몸을 식혀 줘서 재워 보시라. 엄마만 물리지. 옛부터 '모기는 단 피를 좋아해'라는 말이 내려오는데 그 말은 모기가 설탕 같은 단 피를 좋아한다는 말이 아니라 '단 피' 즉 따뜻한(warm) 피를 좋아한다는 말이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모기를 쫓을 때 요즘처럼 살충제를 칩! 뿌려 죽이는 것이 아니라, 모깃불을 피워 연기를 많이 피워 그 연기를 따라 다른 곳으로 쫓아 내는 방법을 사용한 것이다. 나가 놀아라~~ 얼마나 인간적인가?

모기는 또 하나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모기 주둥이에는 빨대가 있는데 끝에는 낚시 바늘과 같이 돌기가 있어 핏줄 한 가운데를 찌르지 못하고 살(flesh) 부분을 잘못 찌르면 빨대를 빼는데 애를 먹게 되고 결국은 죽음을 맞을 수밖에 없다. 숙련되지 못한 간호사를 상상해 보면 쉽게 이해된다. 그러나 핏줄을 잘못 찌른 간호사는 꾸지람 듣는 정도에 그치겠지만 모기는 거기에 목숨을 건다. 결코 이러한 생존능력을 연습으로 획득(적자생존, 適者生存)하기에는 개체들의 수명이 너무 짧다. 익숙해지기까지는.

마지막으로 모기가 좋아하는 것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앞에서 말한 따뜻함이고, 둘째는 이산화탄소이다. 우리의 날숨 속에는 많은 이산화탄소가 있다. 이것을 따라 사람 주변에 모기가 잘 모인다. 등산을 가보면 잘 안다. 마지막으로 모기는 화장품이나 비누 냄새 같은 것을 좋아한다. 남자와 여자가 같이 잠을 자면 주로 여자가 물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열이 많은 남자는 예외겠지만, 필자도 여름에 아내와만 같이 있으면 모기 걱정은 별로 안 한다.

사족)

올 여름은 어째 모기를 사랑(?)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창조**

본 전자소식지를 계속해서 받아 보기 원하시면, 저희 창조과학회 대구지부 홈페이지(creation21.org)를 방문하셔서 **회원가입(무료)**하시고, 가입하실 때 반드시 **E-mail 주소를 기입**해 주시면 됩니다. 혹시 요청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홈페이지에서 이메일 부분을 누르시고, 요청사항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날마다 더욱 좋아지는 소식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